

상월·대총 조사 탄신 다례 천태종, 12월 21, 27일

천태종은 12월 21일 오전 11시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중창조인 상월 조사의 제93회 탄신 다례 및 대재를 봉행한다. 천태종 총무원에 "상월 조사의 생애와 유훈을 받들어 종단의 기강을 바로 잡고 중생제도에 전력해 나가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태종은 12월 27일 오전 10시 구인사에서 제2대 중정을 지낸 대총 스님의 79회 탄신 다례를 올린다.

박봉영 기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새 집행부 구성 “위상 높인다”

회장 송덕 스님, 부회장에 보현·진법 스님 비구니강원 재설립·재정독립 추진키로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의 모인 전국비구니회가 제역할 찾기에 나선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12월 3일 서울 봉원사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한편, 종단내 위상 회복 등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제3대 회장에 선출된 송덕 스님(용인 관음사 주지)은 수석 부회장에 보현 스님(의왕 계명정사 주지), 부회장에 진법 스님(인천 법호암 주지), 총무부장에 정원 스님(포천 상락원 주지), 교무부장에 진원 스님(양평 송화사 주지)을 각각 내정했다. 또 지역별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중앙운영위원장에 자신 스님(파주 광범사 주지), 감사에 정후·법조 스님을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종단내 비구니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비구니 강원 재설립, 비구니회의 재정 독립, 독자적인 교육체계 확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무원 이전 이후 문을 닫았던 사무실도 용인 관음사에 설치, 각종 회의 주재와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또 총무원과의 관계 회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행부를 구성하는 한편, 종단내 위상 회복 등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제3대 회장에 선출된 송덕 스님(용인 관음사 주지)은 수석 부회장에 보현 스님(의왕 계명정사 주지), 부회장에 진법 스님(인천 법호암 주지), 총무부장에 정원 스님(포천 상락원 주지), 교무부장에 진원 스님(양평 송화사 주지)을 각각 내정했다. 또 지역별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중앙운영위원장에 자신 스님(파주 광범사 주지), 감사에 정후·법조 스님을 선임했다.

이날 총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종단내 비구니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비구니 강원 재설립, 비구니회의 재정 독립, 독자적인 교육체계 확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무원 이전 이후 문을 닫았던 사무실도 용인 관음사에 설치, 각종 회의 주재와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는 또 총무원과의 관계 회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총무원 청사 건립 기금과 동방대학 원대학 발전기금 모금을 비롯해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의 면담 등을 통해 종단발전을 견인하는 단체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전체 1천5백여명에 달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과 포교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역별 운영위원회를 구성, 네트워크화할 계획이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이 급증하고 조계종 비구니회관 개관, 지음 스님의 천선산 지킴이 활동 등 한국불교에서의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늘고 있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종단내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국비구니회 수석 부회장 보현 스님은 “여성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춰 종단내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종단 발전은 물론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한편,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과 역할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본원종 양평 포교도량 서림사 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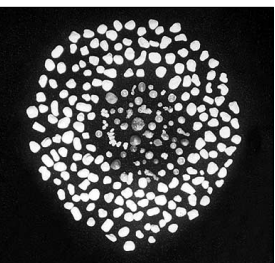
본원종 양평 서림사조실 무구는 11월 30일 낙성, 과천 유점사에서 이운한 아미타존불 봉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태고종 승정 혜초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대화 스님, 양평사암연합회장 화암 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서림사는 주법당인 수광전과 요사와 수련원 기능을 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설선당 등을 갖췄으며, 부설단체인 불교아미타염불선원을 중심으로 제가 불자 안거와 수행·교육 도량으로 자리잡아 나갈 계획이다.



원용종·삼론종 총무원 이전

원용종(총무원장 법륜)은 11월 28일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23번지로 총무원을 이전하고 법회를 열었다(사진). 종정 일공 스님은 “종단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종도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총무원 청사에는 지상 4층, 연면적 250여평 규모로 사무공간을 비롯해 교육장, 숙소, 법당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한편 삼론종(총무원장 해광)도 11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293-44번지 혜림사로 총무원을 이전했다.

덕암 대종사 사리 242과 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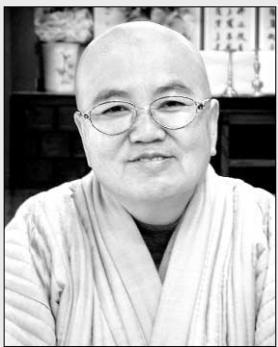
11월 22일 열반한 태고종 제16세 종정 덕암 대종사의 법구에서 242과의 사리(사진)가 수습됐다. 덕암 대종사 장의위원회는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리를 수습한 결과 총 242과의 사리가 출현했다고 밝혔다.

덕암 스님의 사리는 마지막 주석처였던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 부도탑을 세워 봉안할 예정이다. 사리전건법회는 추후 덕암문도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종단발전에 한 축 담당할 것

3대 회장 송덕 스님



“종단의 개혁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종단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12월 3일 서울 봉원사에서 열

린 임시총회에서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된 송덕 스님은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종단내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수행과 포교에 힘쓰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모아야 한다”며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처와 포교도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비구니회 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 나감으로써 종단을 구성하는 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송덕 스님은 “사무국 설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구 중심 종무행정 정착”

진각종 효암 통리원장

진각종이 지역 교구 중심의 종무행정에 박차를 가한다.

진각종은 11월 27-28일 양평 남한강연수원에서 중앙 종무기관 보직승과 6개 교구청 직무승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교구 직무승제도를 정착하는 등 지역 교구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각종의 교구 직무승제도는 각종 행사와 사업, 예산 운용 등을 교구에서 자체적으로 분담해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효암 통리원장은 “앞으로 종무행정을 비롯한 각종 행사 등은 교구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중앙과 교구청·산하심인당 간의 종무행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게시판

행사 ▲조계종 파라미터 청소년캠프는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양양 낙산 유스호스텔에서 심신수련 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 중심의 고3수험생 수련캠프를 연다. (02)723-6165

▲대한불교청년회가 운영하는 만해문화대학은 12월 17일 만해교육원에서 과별행차와 점안식을 봉행한다. (02)738-1920

▲동악미술사학회는 12월 13일 오후 2시 풍곡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윤용이 명지대 교수와 장희정 전남대

강사가 '강화 선원사지 출토 고려 청자에 관한 고찰'과 '근대 수도권 불화의 전통성과 신경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02)2260-3463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는 12월 12일-14일 경북 예천 봉명사에서 '범사회적 이슈에 처한 승가의 입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 행사 후에는 용문사, 봉정사, 부석사 등 사찰 순례도 계획돼 있다. (031)980-7782

모집 ▲천태종 산하 유치원이 2004학년도 원아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다. △부산 광명사 유치원 400명 △마산 유성유치원 180명 △대구 동해유치원 390명 △춘천 삼운사유치원 170명 △횡성 광제사유치원 80명 △단양 광범사유치원 80명 △안동 해동사유치원 210명 △창원 유성유치원 185명 △원주 성무유치원 180명 △영월 삼태사유치원 90명 △울산 정광사유치원 230명 △진주 월경사유치원 200명 △김천 금강사유치원 175명 △홍천 강릉사유치원 90명 △통영

서광사유치원 210명 △밀양 삼암사유치원 130명 △대전 삼문사유치원 150명. (043)423-7100

▲서울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초·중·고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 신인 아동모집한다. 오후 보육은 오후 1-6시, 방학 중 보육은 오전 9시-오후 6시, 국어·수학 학습 지도는 물론 다도, 미술, 영어, 집단활동, 체험학습, 주의집중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02)421-6077

구인 ▲원주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사 1명, 생활보조원 1명을 구한다. 마감은 12월 17일. (033)762-8131

▲여수노인복지관은 12월 13일 까지 이동복지관에서 일할 사회복지사(사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를 구한다. (061)685-2381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지원이제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종단소식

태고사 성역화 불사 추진

태고종은 종조인 태고보우국사 부도와 탑비가 있는 북한산 태고사를 종단 성지로 육성한다. 태고종은 최근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던 주변부지 6천여평을 7천여만원에 매입, 태고종 소유의 사찰 부지로 등기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태고종은 태고보우국사의 부도와 탑비를 비롯해 도량을 성역화하는 불사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임시총의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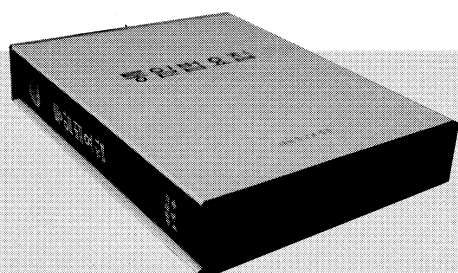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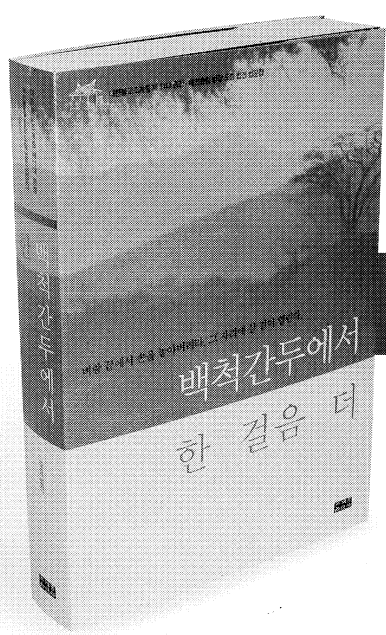
진각종 중앙총의회(의장 진산)는 12월 16일 오후 2시 대구교구

청 회의실에서 제336회 임시총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의회에서는 200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덕화노인요양원 등 개원

진각복지재단은 12월 15일 오후 3시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덕화노인요양원을 개원한다. 종단 자체 복지시설로 건립된 덕화노인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480여평 규모로 노인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진각종은 12월 9일 대구 원대동 3가에 보은노인요양원을 개원했다. (032)833-2300

대한불교조계종 제 11대 종정
해인총림 방장 도림 법전 · 큰 말씀



평생을 간직하고픈 책!
매일 읽어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법문들을 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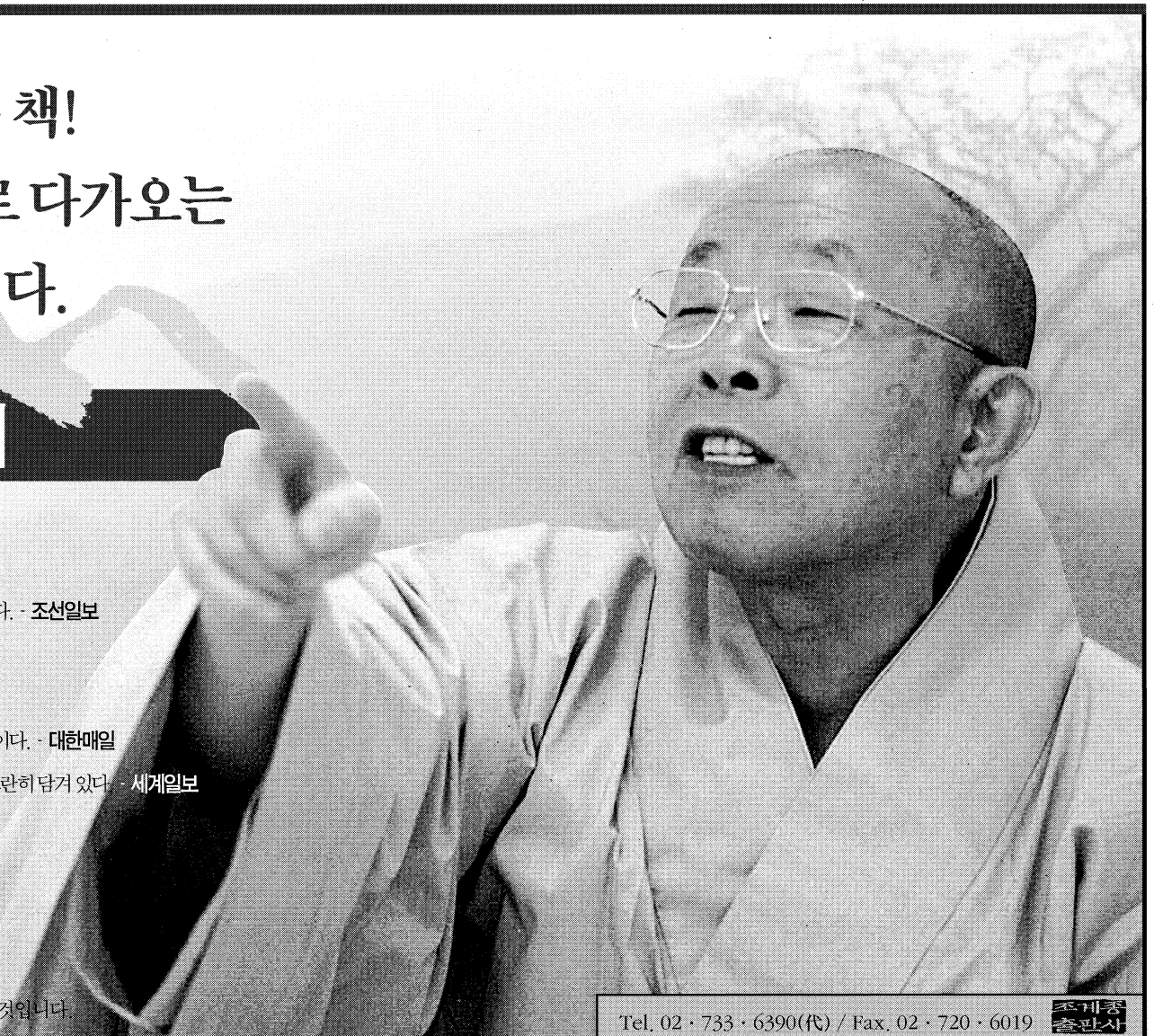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도림 법전 / 조계종출판사 / 정가 20,000원

- 수행자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크나큰 경이 될 책이다. · **한겨레**
- 선승들의 대화법과 기공을 일반인들도 짐작할 수 있도록 많은 일화들이 덧붙여 담겨 있다. · **조선일보**
- 수행자로서의 인간적 고뇌와 구도자의 면모를 보여주는 책이다. · **문화일보**
- 평생 참선 수행으로 일관한 정통 선승, 절구통 수좌 법전 스님의 수행기. · **동아일보**
- 빠를 낚는 수행담과 성철 스님을 비롯한 선승들과 교유한 이야기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 **대한매일**
- 출가해서 종정이 되기까지 생사를 초월한 수행, 진리와 평화에 이르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세계일보**

통일법요집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조계종출판사 / 정가 30,000원

통일법요집은 각각의 사찰에서 달리 이루어지고 있는 불교의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조계종단에서 출간하였습니다. 최대한 의식집전에 편리하도록 꾸민 통일법요집은 미래 불교의식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Tel. 02 · 733 · 6390(대) / Fax. 02 · 720 · 6019

조계종출판사